

M 재테크 Money

최근 국제 금값이 온스당 (28.35g)당 600달러를 돌파하는 등 2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황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금값 급등으로 1년간 수익률이 60%를 넘는 금 관련 금융상품도 등장, 은행의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려는 '골드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적은 투자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일부 상품의 경우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관련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이나=금 투자법은 크게 직접거래와 간접매매로 나뉜다. 직접거래는 100·500·1천g의 골드바(금괴)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 간접매매는 금융권이 판매하는 금관련 간접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직접거래·간접매매 2종류

일반인들이 흔히 이용하는 간접상품은 정기에금처럼 통장에 거래내역을 가입하는 금 적립상품으로 실물거래는 없지만 만기때 현금과 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상품은 신한은행의 '골드리수 금적립'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시세대로 금을 매일·적립해 만기에 실물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2003년 판매이후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은 6.79%이며 1년간 누적 수익률은 28%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4%대)의 7배에 달한다.

年 수익률 65% '황금 펀드' 등장

은행들 금 관련 상품 대거 출시 준비 무모한 수익률 사냥보다 장기투자

결국 지난해 4월초 골드리수 금적립 상품에 1천400만원을 투자해 1kg을 적립한 고객이 현재 시점에서 이를 판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약 350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외환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금 관련 펀드인 '메릴린치 월드골드 펀드'의 수익률도 급등하고 있다. 이 펀드는 세계 유명 금광업체의 주식을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으로, 최근 금값이 수직 상승함에 따라 펀드의 누적수익률이 지난 1년간 65.3%에 달해 투자자들의 희색이 만연하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말 내놓은 '골드리수 연동예금 2호'에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 최근 금값 급등세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 1년동안 금값이 기준가격의 92.5~107.5%를 벗어나지 않으면 12.5%의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최근 추세로 미뤄 상한선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품도 원금이 100% 보장되는 데다 15%를 초과해 상승하지 않으면 8.0%의 수익률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고객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 등이 금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시 주의할 점=전문가들은 지난 20년동안 조정을 보여온 금값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최근 금값 상승은 상승초기 국면으로 향후 금 투자 수익률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마디로 대박을 쫓는 무모한 수익률 사냥보다 가치보존·대체투자 개념

금이 까질 가능성도 있어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더라도 원금보장 여부 상품별 가입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외화예금처럼 금값도 환율에 영향을 받기때문에 달러변동을 케놓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쟁기는 것도 요구된다. 유가처럼 전쟁 가능성에 따라 금등락이 가능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도 체크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박을 쫓는 무모한 수익률 사냥보다 가치보존·대체투자 개념

으로 장기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금도 이젠 주식·예금처럼

신한은행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실 금을 어디서 어떻게 거래할지 몰라 금투자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금융권의 간접상품을 이용해 금도 이제 주식·부동산·예금처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근 아시아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투자 수익보다 귀금속 투자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됨에 따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금값이 지난 7월 25년래 최고치인 601.90달러까지 치솟는 등 금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신한은행 골드뱅크에서 거래되고 있는 500g, 1kg 골드바.

현대차 후속대책 '고민'

계열사 지분 처분·전문경영인 등 모두 부담

현대차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몽구 회장과 정지선 기아차 사장 등 오너 일가를 향해 좁혀지면서 현대차가 분기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 안기부 'X파일' 파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그룹이 8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 환원과 무료 법률상담, 사회 봉사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 현대차그룹은 8일 정몽구 회장의 귀국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 기업으로서 현대차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너 일가 사재의 사회 환원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대차측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실시해 왔던 여러 공익사업에 더욱 힘쓰겠다는 연장선상으로 말할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검찰 수사와 연관돼 다른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대차 안팎에서는 시기

와 내용이 문제일 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떤 내용 담길까= 후속 대책의 내용이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 내놓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라 현대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경영권 승계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글로벌비스를 비롯한 계열사의 주식을 처분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한때 유력하게 흘러나왔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영권 승계는 정 사장이 글로벌비스와 엔코, 이노션 등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팔아 기아차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왔다.

글로벌비스와 엔코, 이노션 등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오너 일가가 수년간 준비해 온 경영권 승계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여서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오너 일가의 동반 퇴진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정착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현대차의 분위기다. /연합뉴스

중소 74% 환리스크 관리 취약

무역협회 실태조사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1천만달러 이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3.8%가 환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위험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환위험 관리방법과 관련해 외부금융 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5.9%, 내부 관리기법 이용이 9.5%, 내부와 외부기법 둘 다 이용한다는 응답이 0.8%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일수록, 수출규모가 작을수록 환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해당분야 지식 전무'가 62.1%로 가장 높았고 '수출

규모가 작거나 대금회수기간이 짧아서'가 13.7%, '비용부담'이 9.5%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환율불안으로 수출기업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환위험관리가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안정적인 환율운용정책이 시급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환위험 대응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콜금리 동결

이성태 한은총재 주재 첫 금통위 '연 4% 유지'

콜금리가 동결됐다.

이성태 한국은행 신임 총재 주재로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일 콜금리를 연 4%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소비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준비해 온 경영권 승계의 가장 확실한 경기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설비투자가 유지되고 있고 건설투자도 개선 기

미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 예상했던 (5% 수준의) 성장 경로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실패경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융 완화 기조를 조금씩 조정하겠다는 관점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번엔 동결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금통위에



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RN	SK텔레콤 서부지사 통신기술직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11	062-529-2671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2	062-369-0790
대영엔지니어링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12	062-944-7292
휴로넷	(주)5일/정규SK텔레콤(광주)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14	02-780-9595
한국에너지공공	정규직 기술영업/영업사원 경력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14	062-953-1771
중원엔지니어링	현장 시공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374-6991
메인텍	(광주)국내영업/영업관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6	031-381-7077
디해	인테리어설계 (캐드, 맥스작업)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16	062-233-2442
인정보기술	영상촬영/편집/시나리오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4/16	062-376-8644
공정전자	[제과점] 디자인 홍보담당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16	062-222-3477
첨단전기	본사공무팀소속 현장관리 및 견적업무 및 공무담당	초대졸/경력4년	2,600~2,800	04/17	062-673-0238
소프트넷	진취적인 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0	062-384-809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

로또복권 (제17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9 26 28 31 33 36	17
등위	
1등	6개 숫자 일치 2,371,132,620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1,165,497
3등	5개 숫자 일치 1,466,922
4등	4개 숫자 일치 58,473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지난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3·4분기말 한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20.0%나 급등, 인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기업 소식/

기아차 5월1일 '미셸 위 골프클리닉'

기아자동차가 이달 말 방한하는 골프 천재소년 미셸 위를 초청, 다음달 1일 KIA 로체와 함께하는 미셸 위 골프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번 골프 클리닉은 4월20일까지 로체와 오피러스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60명을 추천해 행운의 주인공을 선발해 실시할 예정이며, 기아차 VIP고객 및 홈페이지 회원 40명에게도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미셸 위는 윈 포인트 레슬을 통해 각종 샷 시범은 물론 장타 샷 노하우와 일대일 개별레슨도 실시한다. 기아차는 클리닉 참가자 전원에게 미셸위와 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념모자와 골프공 등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젊은 인쇄' 봉사활동

광주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보해양조 '젊은 인쇄 사랑나눔' 1기 봉사단 20명은 지난 8일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에서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하고 광주지역 영·유아원 등을 방문, 위로와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이에 앞서 나눔이 봉사단은 이날 오전 서구 치평동 보해양조 광주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매일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펴기로 했으며 보혜는 사랑의 쌀 20kg짜리 20개(400kg)를 매일 사랑의 쉼터에 기증하기로 했다.

보혜는 3개월 단위로 모집하는 대학생 '젊은 인쇄 사랑나눔' 봉사단을 광주 이외에 목포 10명, 순천 10명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40명으로 늘려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마트, 보험 판매 개시

이마트는 지난 4일부터 삼성화재와 손잡고 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상품은 어린이 보험, 의료 보험, 운전차 보험 등 장기 상품 3종과 자동차 보험 등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뿐 아니라 가재도구 도난, 화재, 가족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종합보험이 결합된 상품으로, '패키지 할인'이나 '보험계약 자동갱신 할인' 등과 같은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돼 일반 가정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8%가 싸다고 이마트측은 설명했다.

또 자동갱신 할인을 적용받은 가입 고객은 계약 후 2차년도부터 1%의 자동차 보험료와 5%의 가정종합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삼성 초슬림폰 '최고 휴대전화 賞'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북미 최대 정보통신전시회 'CTIA 2006'에서 자사 초슬림폰(SGH-T509)이 '최고 휴대전화(Best in Show)'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 미국 출시예정인 SGH-T509는 그 동안 미국시장에 출시된 휴대전화 가운데 가장 슬림한 9.8mm 두께의 바 타입 초슬림폰으로 블루투스 차세대 통신기술인 에지(EDGE) 지원 등 첨단기능을 갖추고 있다.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아울러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쿼터 키보드 글로벌 로밍폰(SGH-i830)'과 슬림 폴더형 '블랙베리 휴대전화(SGH-T719)'를 스마트폰 및 PDA 분야에서 각각 2위, 3위에 선정했다.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초래"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주택 전매제한이 주택공급을 축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지난 7일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주관 '주택시장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에서 주택법표를 통해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공공주택내 분양가 상한제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억제함에 따라 신규주택 공급감소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권과 분양주택의 전매제한도 수요감소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들이 사업계획을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대책 강화 등으로 개발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이밖에도 주택공급개발제가 민간업체를 위축시키고 주택유통, 공공부담 비대화 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과 뉴타운 개발도 공공의 과도한 사업참여로 인해 민간부문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 "시장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써야 하며 이외의 부문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만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